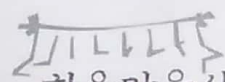


전주한옥마을자서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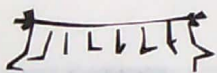
한옥마을사람들 편.



본북대 학교



E00674884



전주한옥마을자서전

1판 1쇄 발행 2004년 10월 24일

펴낸이 | 전주한옥마을사람들

편집책임 | 김병수

편집위원 | 정정숙, 이종진, 박문수, 임성현, 정성엽, 김현주, 장복혜, 성은희

진행 | 윤성중, 소영권, 김회경, 곽정한, 김미향, 이경진, 한천수

* 표지그림은 김미향 작가의 판화작품입니다.

* 본 책의 제작비 일부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.

책을 펴내면서... 마음이 담기길 바라며 • 4

삼백년가 수퍼 이주방 선생님 • 13

삼원당한약방 김종육선생님 • 59

교풍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• 101

다문чат집에서 차 한잔을 마시며 • 127

토담집 • 165

쌍샘길 • 175

이남안 선생님 • 181

전주 한옥마을에관한 단상 • 203



처럼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

이주방 :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. 거길 보고 화물창고라고 했는데, 6.25 사변 후에 생긴 걸로 기억이 나. 그 동사무소 옆에 살던 주인이 생각 나는데,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독일제 오토바이를 하나 샀거든. 지금 좁은목 약수터에 물이 많고 좋으니까 한지공장도 있었고, 우리도 거기에서 물도 먹고 머리도 감고는 했어. 그 앞 전주천에 각시바우 서방바우라고 있었어. 왜 각시바우고 서방바우인지는 아무도 몰라, 그냥 우리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그래. 어려운 시절에는

김종육 : 그렇지요,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. 문의 방향도 중요하고, 좌향도 잘 해야 해요. 앉아있는 방이 제대로 되어서 이 집에서 바라보는 앞에 바라보는 풍경들이 어떤지도 중요합니다. 여기서 바라보는 그 산세가 좋아야 해요. 이 방에서 산세를 죽 돌아보면 천경대 만경대 산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보면 '마산귀인방'이라는 거예요. 그 뜻은 마루에 앉아있는 귀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여기 앞에 중바우가 있는데, 그 바우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선인무수, 즉 신선이 춤을 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. 병풍을



두르듯이 앞쪽에 죽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. 서쪽 방향은 완산 칠봉이 있어서 그 힘이 뭉쳐서 남문으로 내려와 그 남문의 수구를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수구인데, 그게 바로 돈, 재물을 말하거든요. 그 물이 남문시장으로 흐르는데, 남문시장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이치예요. 그래서 교동과 풍남동은 양택으로서는 아주 좋은 터라는 거죠. 여기는 교육도시라고 해서 그 전에 교동은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, 대학교수 등이 주로 많이 살았고, 대지주, 아시다시피 천석꾼 만석꾼들이 다 여기 교동에 살았어요. 그 지주들이나 지식인들의 영향력으로서 교동과 풍남동이 예전에는 대단히 발전되어 왔는데, 시대가 흐르다보니 대지주들은 다 성공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 후손들이 좀 지키다 떠나고 그렇지요.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본토박이들이 안 살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봐야지요.

김병수 :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부안에서 전주로 올라오셨나요?

김종육 : 그거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부안에서 나오셨겠지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

다문 찻집에서 차 한잔을 마시며...

일시 _ 2004년 6월 28일

장소 _ 다문

구술자 _ 박시도

면담자 _ 김병수(공공스튜디오 심심 대표)

정리 _ 곽정한



김병수 : 처음에 한옥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텐데요 들어오게 된 경위는요?

박시도 : 한옥마을을 염두에 둔 마음도 있었지만 그전부터 한옥 공간 같은데서 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한옥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 겠다 해서 오래된 집도 뜯어 보게 됐고 그 리새 한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동산에가서 알아봐서 결정을 했죠.

김병수 : 차를 처음에 판매를 했는데 언제부터 찻집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나요?

박시도 : 찻집하게 된 동기는 차를 마시다가 차에 매력을 느껴서 한번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했죠. 지금은 고생하고 있죠, 뭐... 26살 때 우유공장을 다니면서 찻 집을 알게 되었는데, 삼

년 후 29살 때 찻집을 할 생각이 들었죠. 그 당시 다문 주인은 우리 풍물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고 지금은 도립국악원 시조교수인 이정수씨죠. 그분 또한 풍물치고 그러다가 찻집을 해서 이 지역 문화의 기초를 세워보자 해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.



